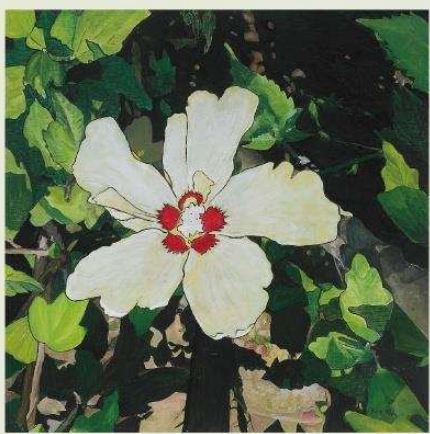




'그림속 화원' 개최



그림속 화원

2024.7.6-14

11:00-18:00

*월요일 휴관

ART SPACE 서울서촌로구 평창11길 41 (평창동 365-3)
Qualla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TEL. 02. 379. 4648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소재 아트스페이스퀼리아에서 '그림속 화원'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6월 18일 봉평 허브나라농원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했던 동문들이 농원을 보고 느낀 작품들을 비롯해 자연소재의 그림들이 전시되었으며, 58학번부터 23학번까지 6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모인 동문들이 허브나라농원에서 함께한 추억을 담은 작품들이라 의미가 더하다. 특히 농원의 풍경을 담은 동일한 사이즈의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색채와 기법이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7월 6일에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본회 김흥규 상임부회장, 아트스페이스퀼리아 박수현 관장 외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김소선(63조소) 동문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기쁘고, 동문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동문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백윤주(17디자인) 동문은 "선배님들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본회소식



S-미술아카데미 여름특강 기초소묘 수업 장면

미술실기아카데미 여름특강

본회 S-미술아카데미가 지난 7월 9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미술실기아카데미 여름특강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8월 29일까지 8주에 걸쳐 이어지는 이번 여름특강은 기초소묘, 드로잉으로 배우는 미술사, 태블릿 PC드로잉,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 자유크로키 등 총 5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기초소묘(강사 김호준)'는 삼각뿔에서 시작하여 인체드로잉까지 확장되는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사실적 묘사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묘 기법을 지도한다. '드로잉으로 배우는 미술사(강사 서길현)'에서는 서양미술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을 직접 그려보면서, 각 장르의 특징, 주제, 용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자유크로키'는 강사 없이 진행되는 누드크로키 수업이다. 누드모델을 그릴 기회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겨냥해 개설된 해당 수업은 미술 입문자들뿐만 아니라 동문작가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봄학기 이어 두 번째 개강을 맞이한 '태블릿PC드로잉(강사 이필두)'과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강좌도 새로운 수강생들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태블릿PC드로잉' 수업은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PC를 활용한 드로잉을 지도한다. 수강생들이 태블릿PC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 수업은 노련한 강사의 지도로 수강생 맞춤 수업을 제공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본회가 주최하는 미술실기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백악미술관 2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여름특강에 이어 가을학기 강좌가 15주 동안 열린다. (본지 6면의 미술실기아카데미 가을학기 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 참조 수강신청 : 010-8605-8065)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여

본회는 지난 7월 26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서울대동창회장상(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본회 이민주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수상자인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채연 학생에게 시상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이사장 장부남)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다. 본회는 2018년부터 최우수상인 서울대대동창회장상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로부터 총 1,20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중 541점이 상을 받았다. 한편 본회는 지난 5월 개최한 장애청소년 후원을 위한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회장동정



일본 국토교통상 면담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본회 회장이 지난 7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과 만나 목조건축, 거리 그린벨트, 스마트 건축 등 여러 과제를 논의했다.

디지털과 모듈러 심포지엄 참석

지난 7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LH가 주관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 - 디지털과 모듈러'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디지털·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CRC 국가디자인 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참석

지난 7월 8일 경기 의정부시가 용산구 소재 김현선디자인연구소에서 개최한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서밋포럼 참석

지난 7월 18일 코리아씨이오서밋이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36회 서밋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예고 특별한수업 진행



지난 7월 11일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권회장(서울예고 교장)이 직접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권회장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결심한 이유는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으며, 학생들이 거칠고 메말라가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 앞에 서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수업은 1학년 1반 교실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전공과 학년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수업의 주제는 '꿈과 나', '예술·예술가', '경청', '영성', '올바름' 등으로 구성됐다. 권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업을 마친 권회장은 "각 학급을 돌며 수업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 예술의 미래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언젠가 교장실 문을 열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년도 사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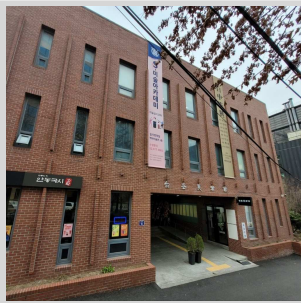
사무소 운영현황



서울대오피스(동창회)
서울대학교 50동311
010-5235-1946



선릉오피스(법인)
역삼동아남타워1323
010-8605-8065



인사동오피스(아카데미)
인사동백악미술관2층
010-8579-7654

운영관리

▶정기감사 실시

5월 15일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본회 및 본회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에 대한 2022년도 사업 및 회계내역 정기감사 실시

▶정기총회 개최

5월 25일 수담한정식에서 정기총회 개최. 24대 회장 및 감사 선출(회장 권영걸/ 감사 이종복, 김종선)



▶임원상견례 개최

7월 25일 수담한정식에서 24대 임원진 상견례 및 사업보고



▶신입회원 기념품 증정

본회 신입회원이 되는 2023년도 모교 졸업생(석박사포함)들에게 입회기념품 증정. 기념품은 작품제작시 착용하는 작업용 앞치마로 본회가 주문 제작 (본회 온라인 에스아트몰에서 구입가능)



▶E-NEWS 발간

본회홍보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연 12회 매월 말일 '서울미대동창회 E-NEWS' 발간, 3500여명에 이르는 동문 및 관련인에게 메일발송(본회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에서도 확인가능)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운영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및 자료 게재. 회원 1000여명의 작품 및 경력 등 아카이브 운영, 지속적으로 자료 추가수록 및 수정작업 진행

▶SNS계정 운영

본회 공지사항, 회원들의 경조사 및 전시 등 동정 전달.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채널 운영(명칭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모교지원



▶학장 간담회 개최

2월 2일 본회 권영걸 회장은 모교를 방문, 신임 정의철 학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모교 및 동창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



▶장학금 수여

2월 22일 및 8월 24일 연 2회(1, 2학기) 각 과별로 1명씩 5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의 장학금 지급. 2학기부터는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과별 회장 5명에게 장학금 수여



▶2023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12월 7일 모교 졸업전 우수작가 8명에게 베리타스미술상(동창회장상) 시상. 상장과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 개최(수상자 : 고수정, 권민주, 나희연, 박소영, 배인규, 유지원, 윤동신, 윤은서)



▶야식지원사업

본회 서울대오피스에서 연 2회 전·후기 졸업전과 과제전을 위해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야식을 지원. 연인원 1000여명에게 컵라면, 군계란, 에너지바 등 간식 4000여개 제공



▶MT/스케치여행 간식 지원

4월 27-29일 각 과별 MT스케치여행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을 지원. 아침 일찍 떠나는 엠티 일정을 감안하여 버스 안에서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호두과자를 한현정(08동양) 동문의 후원으로 제공



▶영상전 지원

6월 23일 모교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상전의 개막 축하연시 핑거푸드 제공. 영상전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미디어아트 등 모교 학생들의 영상작품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자리

▶명절 감사선물 전달

설날 및 추석에 모교 경비실, 미화실, 행정실 등에 감사선물 전달

2023년도 사업내역

전시행사



▶2023 빌라다르 & VERITAS미술상전

본회 회원전으로 베리타스상 수상작가전과 함께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 53학번부터 19학번까지 총 200여명의 동문 참가



▶한호니초대전-Shining Hope

신진동문작가 기획초대전으로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본회와 MOU를 맺은 갤러리B에서 개최. 한동문의 완쾌를 기원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 완판 후 작품비 전액 전달



▶소확행아트컬렉션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로 서울대 총동창회와 공동주최해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SNU장학빌딩에서 개최. 수익금은 모교 장학기금 및 본회 창작 지원금으로 후원



▶황시연초대전-불량한 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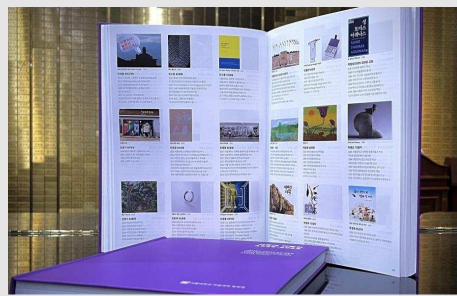
신진동문작가 기획초대전으로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아트갤러리에서 개최. 본회와 MOU를 맺은 지아트갤러리가 연 첫 초대전으로 황동문의 회화 작품 18점 전시



▶일상속의 예술-디자인&크래프트

디자인 및 공예 분야 전시로 소품전과 함께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그래픽, 일러스트 등의 평면 분야와 아토토이, 금속공예 등 입체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

사업 및 행사



▶서울대미술인 1946-2023 발간

4년간 자료수집 후 동문 3000여명의 실적수록(작품·영화·공연·저서·사업 등) 12월 발간. 선후배간 인지도 향상과 사회 진출 후 동문들의 활약상, 미대 졸업 후 진출 가능한 다양한 분야 제시



▶S-아트부스쇼

본회를 후원한 동문들을 위한 부스개인전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김소선 등 6명의 개인전과 특별전으로 김명은 등의 4인전 '포착된 풍경' 개최



▶온라인 사업 확대

7월 서울대총동창회 온라인전용몰 MallSNUA(몰스누아)에 미술품 분야 입점. 몰스누아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회원 8000여명에 70여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2700여개의 상품을 취급



▶힐링인아트

환우들을 위한 전시로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갤러리 SPACE-U에서 개최. 참여 작가는 본회 최초로 공모를 통해 소미정, 송인욱, 이승은 동문 선정



▶미술여행-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

본회 최초로 미술여행을 실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동문 28명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실시. 여행의 테마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의 그림속 실풍경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행 후 참여 동문들의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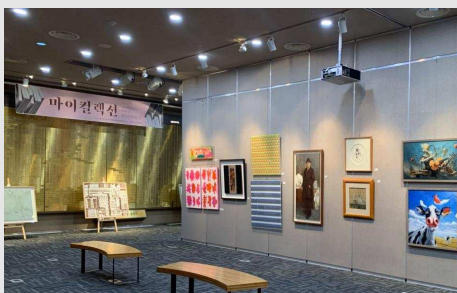


▶숨은 예술가들 개최

비미술전공 서울대 동문전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와 공동주최해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SNU장학빌딩에서 개최. 변호사, 의사, 교사, 음악가 등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서울대 동문작가 참가

▶동창회장상 시상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 시상
제16회 8월 장흥물축제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 최우수상 시상



▶마이컬렉션

서울대 동문들의 소장작품전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와 공동주최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SNU장학빌딩에서 개최. 서울대 동문 및 단체의 소장작품들을 특별할인가격으로 소장기회 제공



▶서울대총동창회 캘린더 작품수록

2024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탁상용 달력에 수록되는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 동문작가의 작품 13점을 재능기부를 통해 수록 제작 후 서울대 동문들에게 증정

부속기관 소개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모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센터장 신하순)는 조형연구소 산하기관으로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동양화과 교수진이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순관영조도>, <임진전란도> 모사본 제작 및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 사업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얻은 이후 2013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태조어진>, 2014년 <순종어진>, 2015년 <원종어진> 등 중요한 문화재의 모사본 제작사업을 수행해왔다. 유물의 모사본은 원본을 대체하여 전시 및 대외에 활용하거나 유일본 문화재를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다. 모사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역사·미술사의 관점에서 유물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된다. 인문학적 문헌조사, 육안 관찰, 현미경, X선 적외선 촬영, 고화질 촬영을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유물의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재현하기 위한 바탕 재료, 안료, 채색 기술, 수리보존 및 장황 등 전문가 자문과 재료 실험이 적용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모사도는 전통 재료와 기법을 계승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생산한다.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미술과 보존과학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교수진과 연구원들은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연구생, 보조연구원, 석박사 이상 전문가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예술 창작 교육의 원동력을 부여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내외 전시를 기획하여 홍보하고 있다. 작년 여름 8월 4-15일에는 삼청동의 한벽원미술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고지도" 전시를 개최하며 아름다운 고지도 모사본을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는 <기성전도>, <도성도>, <전주지도>, <화성전도> 등 13여 점의 모사본이 출품되어 원형복원모사, 현상모사, 고색복원모사 등 연구 방향에 따른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생생하게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4년 10월에 74동 예술복합연구동 우석갤러리에서 <화성원행의궤도>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이 예정되어 있다.



모교소식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모교 학생회 'ART:I 아티'(회장 윤솔하)가 지난 5월 28일 모교 49동 및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에서 2024 상반기 모교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솔하(22동양) 회장과 박서영(22서양)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 28명과 미대 공식 동아리 대표 3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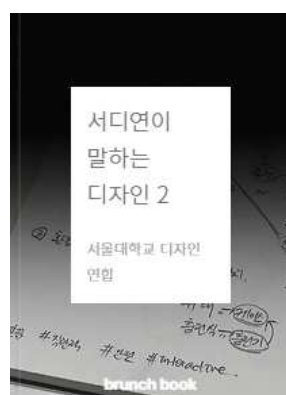
일일호프 개최



모교 학생회가 지난 6월 25일 신촌 바플라이 1호점에서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일일호프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주점을 대관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행사다. 스태프로 일하는 학생들은 힘을 합쳐 일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학생회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익성 행사로 기획되었다. 학생회는 이전에 일일호프를 개최해 본 경험을 토대로 본 행사를 제안 및 추진했고, 이후 구성된 '일일호프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했다. 일일호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도 서로 친해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생회는 앞으로도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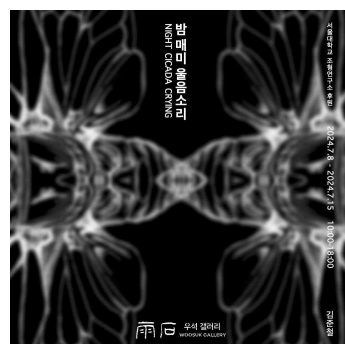
'서디언이 말하는 디자인2' 발행



'서울대학교 디자인 연합 스터디'(이하 서디언)가 지난 6월 브런치북 '서디언이 말하는 디자인2'을 발행했다. 서디언은 모교 디자인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교 소속 공식 동아리이다. 이번 브런치북은 22학년도 가을학기에 작성한 '디자인 칼럼'의 합본이다.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8명이 참여하여 디자인의 본질을 탐구하고 사고하며 자기만의 언어로 서술했다. 브런치 웹에서 전문을 감상할 수 있다.

우석갤러리

'미종결 사건', '밤 매미 울음소리' 외



우석갤러리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네 차례의 전시가 열렸다. 전서연(18동양) 외 4인의 동양화와 동문의 전시 '미종결 사건'이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렸고, 이어서 8일부터 15일까지 김준철(18조소) 동문의 개인전 '밤 매미 울음소리'(◀사진)가 열렸다. 김영현(16동양) 동문 외 1인의 전시 '대리석을 찾는 장미'는 18일부터 30일까지 열렸으며, 19일부터 30일까지 미술경영 협동과정 후원 단체전 'Cryptopatriology'가 열렸다. 우석갤러리와 조형연구소는 지속적인 전시 공모 및 후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소식



On the Lounge : 총장과의 대화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가 지난 6월 25일, 2024학년도 두 번째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이하 온더라운지)'를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개최했다. 학생지원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방송동아리가 주관한 이번 온더라운지의 주제는 '캠퍼스 인프라'였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셔틀버스와 퍼스널 모빌리티(PM) 문제가 다뤄졌다. 학생들은 셔틀버스 배차 간격과 야간 셔틀 부족에 불편을 호소했고, 유총장은 수요에 맞춰 배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PM과 관련해서는 무작위 주차와 주행로의 모호성으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과 PM 이용자 간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학교 측에 알려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캠퍼스 내 공간과 시설 인프라 논의도 이어졌다. 관정도서관 폐관 시간 조정, 흡연 부스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운동시설 통합, 시설 캠퍼스 투어 규제, 외부인 식사 공간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유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에 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자축구부, 고려대 꺾고 '샤컵' 우승



서울대 여자축구부(SNUWFC)가 지난 7월 7일 관악캠퍼스 종합 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배 전국 대학여자축구대회 샤컵 결승전에서 고려대(엘리제 FC)를 꺾고 우승컵을 들었다. 2018년 첫 우승 후 두 번째다. 샤컵은 서울대학교 여자축구부가 주최하고 운영하는 대학 여자축구 대회다. 201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았다. 7월 6~7일에 열린 이번 대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처음 '총동창회 배'로 치러졌다. 서울대, 고려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2팀), 중앙대(2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총 12개 팀이 참여했다. 서울대 여자축구부는 조별리그에서 동덕여대와 1:0 승, 성균관대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했고, 8강과 4강에선 중앙대와 연세대를 꺾고 고려대와 결승에서 맞붙었다.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이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 김도은(21체교) 선수와 정서본(21전기정보공학) 선수, 이윤지(21체교) 선수가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여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려대가 2위, 연세대(W-Kicks)·이화여대(ESSA)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우승팀 부상은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과 40만 원 상당 상품이다.

발전재단기부자 초청음악회

서울대 발전재단과 문화예술원이 주관한 서울대 발전재단 기부자 초청음악회 '우리 시대의 영웅 바리톤 사무엘 윤 음악회'가 지난 6월 12일 제1파워플랜트 68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인 사무엘 윤과 윤교수의 지도를 받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 '드리머즈' 아티스트 그룹이 풍성한 목소리로 공연을 펼쳤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기부



자들의 힘찬 박수와 열렬한 호응 속에서 진행된 음악회에는 기부자와 동반 가족, 학내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의 시대를 넘어 문화력의 시대에 학생 활동과 문화 소통의 중심지인 문화관을 새롭게 정비하여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관 리모델링' 모금사업을 홍보했다. 이날 문화관 건립 후원에 함께한 기부자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네이밍 예우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하여 2028년 새롭게 탄생할 문화관의 기대감을 높였다.

학부대학 릴레이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8일 제5차 학부대학 릴레이 포럼 - 학부대학 설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성규 교육부총장의 학부대학 설립 추진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교무, 교육, 학생분과 별 학부대학 설립(안) 발표로 진행되었다. 발표 후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석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포럼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혁신은 제도와 커리큘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정답이 없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들이 모여야 학부대학 혁신이 가능하고, 서울대를 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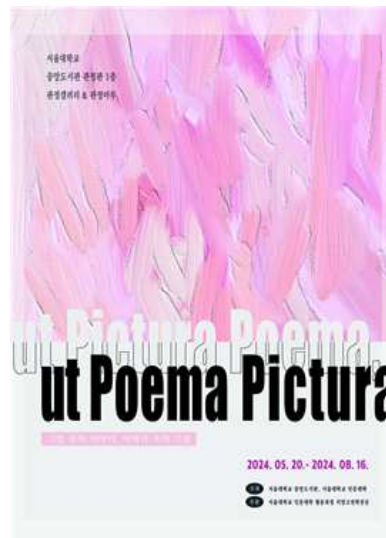
LnL 시범사업 학생 공청회



서울대학교 소속 LnL 시범사업 운영단(이하 운영단)이 지난 6월 4일 서울대학교 28동에서 'LnL 시범사업 학생 공청회'를 열었다. 운영단은 2022년 10월부터 생활(Living)과 배움(Learning)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LnL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LnL 시범사업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LnL 시범사업 성과 및 활동 현황, 2025년 LnL 확대 계획(안), 학생들이 바라는 점을 발표 및 논의했고,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 '그림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그림'



서울대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과 인문대학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과 함께 전시 'Ut Pictura Poema, Ut Poema Pictura(그림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그림)'을 개최한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서양 고전 원문과 명화를 소개한다. '에크프라시스(ekphrasis)'는 그림을 이용해서 역사와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그림이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이야기가 그림을 담아내는 표현 기법이다. 전시는 그리스·로마 문헌에서 발견되는 에크프라시스가 후대 예술가들에게 수용되어 다시금 그림으로 묘사된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관정관 내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은 전시회' 개최하고 있다. 작은 전시회는 이번 전시로 23회를 맞았다.

총동창회소식



동문바둑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7월 7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에서 제20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동문과 재학생 117명이 참가해 세대를 초월한 수담(手談)을 나눴다. 이 중 가장 먼저 입학한 동문의 입학 연도는 1958년, 가장 늦게 입학한 재학생 참가자의 입학 연도는 2024년이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치러졌고, 단체전에 7개 팀, 개인전에 81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농생대 팀이 인문대 팀을 꺾고 1년 만에 우승기를 탈환했다. 농생대 팀의 주장 이재철(86농업토목) 동문은 "팀원들이 10년 이상 함께 바둑을 즐기고, 동문 바둑대회 때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고르게 전력을 유지한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오주성(07물리천문) 심판위원은 "동문 바둑대회는 졸업 후에도 바둑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모임이다. 매년 치르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한다"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병식 대회 운영위원은 "내년 동문 바둑대회는 단체전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여 참가팀 수를 늘리고, 개인전은 인터넷 바둑 기력으로 접수해 조별 편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포럼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는 지난 7월 4일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었다. 이날 동문 스타트업 대표인 김도균(18수리과학) 달파 대표, 이상호(08대학원) 만드로 대표, 정인범(76금속공학) BSG머티리얼즈 대표, 김세훈(92섬유고분자공학) 어썸레이 대표 등이 사업을 소개한 후 질문을 받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업무 자동화에 필요한 AI를 공급하는 달파는 'B2B AI 시장의 다이소'를 목표로 한다. 김도균 동문은 "기업 맞춤형 AI도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빨리 제작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조립도 AI로 가능하도록 'AI 만드는 AI'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동문은 10여 년 가까이 갈고닦은 기술의 집약체인 전자이수를 소개했다. 만드로의 기술은 의수 시장을 넘어 로봇 시장까지 넘본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에 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BSG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음극재 원료에 주력하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과 급속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인범 동문은 "플라즈마 공법으로 실리콘 분말 입자를 나노화하고 응집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탄소나노튜브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어썸레이는 탄소나노튜브 기술로 구현한 엑스레이 튜브와 엑스레이 튜브를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김세훈 동문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탄소나노재료연구실 박사 4명이 공동 창업한 어썸레이가 "서울대 기술로 서울대 연구실에서 시작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 포럼은 올해 중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올해 총 16개 기업을 소개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관악경제인회가 집중 관찰하고 성공사례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철 동문 등 장학금 기부 이어져

미국철(68공업교육) 동문이 6월 18일 총동창회에 장학금 2억원을 기부했다. 마동문은 2006년 첫 기부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억 3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김승환(80제약) 동문은 6월에 2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고 장학금 1억원을 달성했다. 이준호(05기계항공공학) 동문은 첫 기부인데도 10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액수를 기부했다. 이미 장학금을 낸 동문이 다시 장학금을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기용(68독어교육) 동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했던 1000만원을 달성하고 6월부터 다시 장학금 1000만원 기부를 재약정했다. 이종일(68농공) 동문은 지난해부터 1000만원 조성을 목표로 매월 1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4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정광현(71독어교육) 동문과 이연자(59기약5) 동문도 10여 년 만에 각각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8월 수요특강



【특강 안내】

- 일 시 : 8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주 제 : 기후위기, 과학을 넘어

【신청 방법】

- 참가신청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 원(김밥, 생수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8월수요)
 - * 8월 22일(목) 이후 신청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02-702-2233

9월 조찬포럼



【포럼 안내】

- 일 시 : 9월 12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前외교통상부 장관
- 주 제 : 2024년 미국대선 - 전후 국제질서의 변곡점

【신청 방법】

- 참가신청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9월조찬)
 - * 식사 예약으로 9월 6일(금) 이후 신청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 02-702-2233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임원	회장	5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사	30만원
	평생회비	10만원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4.7.1-31)

- * **이사회비** 김무기(83조소)
- * **일반회비** 김상경(87서양) 박광철(57미학) 이영애(66응미) 전기순(82응미) 김다현(명예회원)
- * **평생회비** 박혜영(76응미) 이동영(76응미) 한귀희(68회화)
- * **광고후원** 박소영(73회화) 이영선(갤러리PAL대표) 각 20만원
- * **작품기증** 김명은(17동양) 김세은(23서양) 김소선(63조소) 김신현(58회화) 김윤이(23서양) 김정아(17서양) 김종삼(96서양) 민수정(82회화) 박덕실(81회화) 박도현(16디자인) 박혜령(74회화) 백윤주(17디자인) 변영혜(78회화) 서효숙(81회화) 선우항(91서양) 손문자(62응미) 신경훈(74응미) 안수경(85공예) 이지희(80회화) 이현재(석24동) 이혜민(74응미) 조은영(74회화) 조은경(61회화) 조하늘(19동양) 한영옥(58회화) 김다현(명예회원) -그림속화원 참여작가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민기(69회화) 본인상
 김민기 동문이 지난 7월 2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김동문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출생해 경기중 고교를 거쳐 모교 회화과에 입학했다. 이후 포크 듀오 도비두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71년 '아침 이슬', '친구' 등을 담은 김민기 1집을 발표했고, 이중 '아침 이슬'은 당시 유신정권 반대시위에서 널리 불렸다. 1991년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세우고 1994년 극단 학전을 창단했으며, 대표로서 극단을 이끌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2024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2024 미술실기 아카데미 가을학기 일정



접수기간
8/5(월)~8/23(금)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9/2(월)~12/14(토) 15주 / 공휴일 휴관(보강 진행)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45만원(강좌에 따라 재료비 별도)
자유크로키 강좌 30만원(모델료 별도)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커뮤니티->공지사항)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월	화	수	목	금	토
10-13시 유화 (초, 중급) 안성규	드로잉으로 배우는 미술사 (이론과 실기) 김호준	AI와 테블릿PC로 굿즈 작가 도전하기 (디지털 페인팅) 이필두	프레스코화 (전통벽화기법) 선우항	나의 이야기와 그림 (그림책 워크샵) 광영권	<div style="border: 2px solid #8B4513;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text-align: left;">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8B4513;">특강</p> <p>나전소반 만들기</p> <p>나성숙</p> <p>화 10-13시</p> <p>복춘 서로재</p> <p>8회 66만원 (재료비, 부가세 포함)</p> </div>
자유크로키 (누드) 강사없음	기초소묘 (기초도형에서 인체소묘까지) 김호준	프리페인팅 (자유창작) 임철순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 문인화) 변영혜	수채화 (초급, 중급) 박혜령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동문탐방

곽영권(75응미)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명예교수



곽영권 동문은 그림책 '80년대 이야기', '꽃동네 이야기' 등을 발표한 작가이자 교육자이다. 1995년 프랑스 정부 초청 전 '한국어린이그림책전'(파리 퐁피두센터, 주불문화원)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전에 초대됐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이며 본회 S-미술아카데미에서 그림책워크샵 '나의 이야기와 그림'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부터?

대학시절 저는 시각디자인 전공이었는데 그 수업 속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접하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매체가 미술의 사회적 소통에 아주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상황은 어땠는지?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었던 80년대 중반에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서점이나 출판사는 물론 대학에 일러스트레이션 교육을 위한 전공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사동 화랑가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전시에 대관도 해주지 않던 시절이었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직무분석을 보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의 직무분석은 1999년 말에야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회에 제대로 인정받은 게 최근의 일인 것이죠. 90년대 후반 IMF로 인해 주어진 내용에 자신의 그림을 반복해 그리는 생계형 주문생산 작가들의 수요가 끊기며 창작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창작 수요가 양적으로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걱정도 됩니다. 그림책은 미술이 문학과 인재를 만나 대중과 소통하게 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일러스트레이션전공을 개설하기까지의 여정은?

80년대 중반부터 저는 모교는 물론 흥대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의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작가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다 인사동 제3미술관(당시 관장 황현수 본회 부회장)에서 기획전을 열게 됩니다. 모교와 흥대에서 15명씩 30명을 선발해서 삼 년간 세 번의 그룹전을 했지요. 그중 '레코드자켓전'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목을 토대로 업체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일러스트뱅크'가 구성되고, 이후 여러 갈래로 나뉘어 활동하던 작가그룹이 모여 '출판미술가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때 진행하던 그림책 워크샵 행사가 점차 확대되어 한겨레일러스트레이션학교로, 다시 HILLS로 성장하면서 그림책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그림책 전문서점과 출판사가 등장합니다. 당시 대학에는 일러스트레이션 교육을 위한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에 재직하고 있던 제가 2003년 학교에 발의하여 디자인대학원 과정으로 2004년에 일러스트레이션전공을 개설했습니다.

제자들이 공모전 등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교육자로서의 소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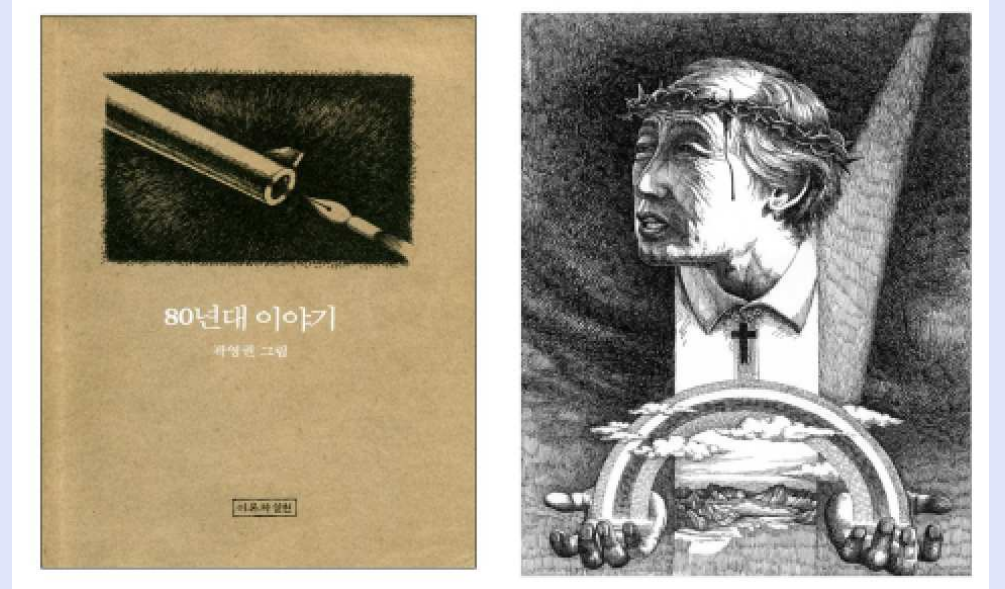
슬로바키아의 BIB, 이탈리아의 볼로냐어린이도서전 그리고 국내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제자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BIB에서 받은 그랑프리상은 동양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수상한 바가 없는 유일한 것이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었죠. 볼로냐 도서전에서 라카치상을 받은 제자도 많았습니다. 공모전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나를 찾기 위해 개인별 관심사로 시작한 그림책 프로젝트 수업이고, 본인들이 살아온 주변을 되새김질하며 스며 나오듯 그려낸 자신의 실체이자 보람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간한 책 중 대표작을 소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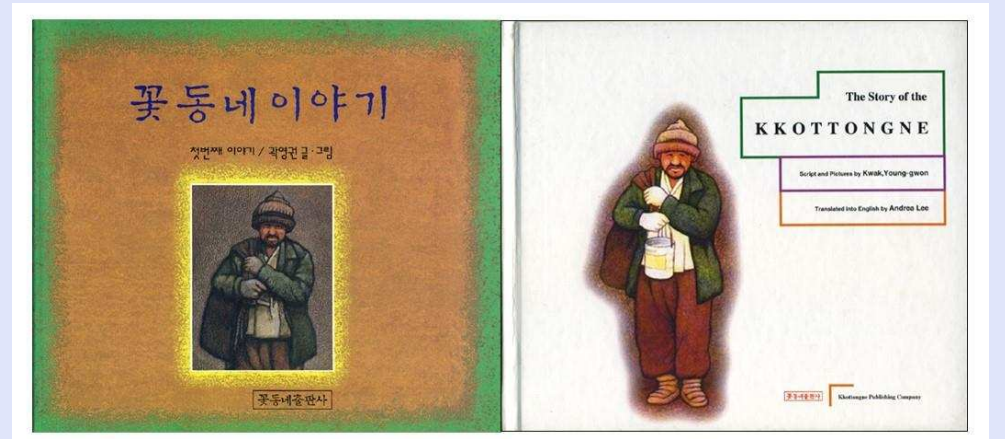
당대 사회현실을 기록한 <80년대 이야기>, 송고한 자기희생의 다큐멘터리 <꽃동네 이야기>, 우리문화 그림책 <사물놀이 이야기>, 오래된 미래-경전 이야기 <부모은중경>, 그리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와의 합작인 <비움>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선생으로서 교육에 앞서 먼저 견본을 만들어보며 학습하고자 한, 그런 작업의 더미북이었는데, 출판사와 인연이 닿아 대중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전도해 <부모은중경>은 성경이나 코란과 같은 경전인데 효도에 관한 내용이라 널리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 요즘 시대에 맞게 풀어써 그려본 것입니다. 특히 경전도해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그림으로 풀었던 것이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시작이자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이야기>는 저널리즘으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실험으로 당대의 어두운 현실을 자료에 근거해서 그려낸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던 도중에 '이론과 실천사'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출판하자는 겁니다. 아직 한참 더 그려야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는 조용했는데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기사로 4면에 대서특필 되며, 제3미술관 출판기념전 기간에는 미술관 밖으로 관람 행렬이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꽃동네 이야기>는 다큐멘터리그림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취재 과정과 이야기 전개, 그려진 화면 고증 등에서 오웁진 신부님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마지막 몇 달간 꽃동네 '임종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그림책을 마무리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 입회 김형대(56회화) 이철주(61회화)

김형대 동문과 이철주 동문이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 개최한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각 분야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올해는 두 동문을 포함한 9인이 선출됐다. 김형대 동문은 1961년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상을 차지, 추상미술로 국전에서 수상한 최초의 작가이다. 김동



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이철주 동문은 1960년대 인물과 실경산수를 수묵담채로 그려 한국화가로 입지를 다졌다. 당시 한국화는 산수화라는 등식을 깨고 도시를 수묵담채로 그려내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 신인예술전 최고상을 시작으로 국선 문화공보부장관상 등 많은 수상경력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이다.

한미도예초대전 · 한미디자인초대전 이부연(71응미) 외

이부연 동문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주관 온라인 전시 '2024 한미도예초대전(2024 Korea-US Invitational Ceramic Exhibition)'과 '2024 한미디자인초대전(2024 Korea-US Invitational Design Exhibition)'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2024 한미도예전과 2024 한미디자인전은 각각 134명, 77명의 원로 및 유망 신진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전시로 기획되었다. 이 전시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박윤정 동문을 비롯해 김유주, 박수용, 박윤정, 서동희, 신동수, 윤솔, 이경희, 이부연, 이자숙, 이춘복, 이혜미, 장지원,



정희균, 허민자, 황승욱, 황현숙 동문 등이 참여했다. 이부연 동문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나누며 이해하는 활동은 도예와 디자인 전공자뿐만 아니라 미술인 나아가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해야하는 축제이며 기성 미술인들과 젊은 미술전공 후배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서울 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이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69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서초구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열린다. 예술원은 매년 탁월한 창작 활동을 선보인 예술인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미술 부문에 서동문, 문학 부문에 김명인 시인, 영화 부문에 이장호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서동문은 2008년에 정년이 10년이나 남은 모교 교수직을 그만둔



이후 작업에 전념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해에 6회의 전시를 열고 새로운 성격의 작품을 내놓으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 '서용선의 마고이야기, 우리 안의 여신을 찾아서'(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재, 서울, 2021), '통증·징후·증세: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9) 등이 있다.

아트 매거진 'HURZINE' 발간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이 지난 6월 아트 매거진 'HURZINE'을 발간했다. 'HURZINE'은 중견화가 허진의 작품 세계와 여러 스타일의 글쓰기를 연계한 매거진형 아트북이다. 허동문은 "인물 에세이를 비롯해 작품 비평문, 대표작, 인터뷰, 연보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미술작가와 편집자, 디자이너 3인 협업 체제로 진행하여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는 실험형 간행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 배경으로는 1990년 '묵시' 시리즈를 발표하며 촉망받는 신예 작가로 떠올랐던 화가 허진 한 사람에게 집중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문은 인간 삶의 조



건을 깊이 응시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금호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총 35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비롯 제1회 한국일보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5 10th DAF GoldenEye 한국구상작가상 수상,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현 고유섭 추모제 개최 김선학(83응미)

김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우현민간단체가 지난 6월 22일 인천 중구 용동 큰우물 광장에서 민족 문화 독립 운동가 우현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서거 80주기를 기리는 추모제와 추모예술제를 개최했다. 고유섭 선생은 한국미술사학의 선구자로 경성제대(옛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미학·미술사학을 전공했다.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장으로 취임해 전국을 누비며 한국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며 한국 근대 미학과 미술사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행사를 총괄한 김동문은 "우현 고유섭의 생가터인 용동 큰우물



과 우현문갤러리를 중심으로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싸워 '한민족의 얼'을 지켜내신 우현 선생의 민족문화 독립운동의 가치를 인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자발적 발의로 재조명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지켜낸 우현 선생의 의지와 정신이 인천 시민에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현의 깊이를 더해 새로운 한민족의 얼을 창조, 발굴, 계승, 연구해 새로운 운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 수상 염혜원(95서양)

염혜원 동문이 지난 6월 25일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를 수상했다. 보스턴글로브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염동문은 그림책 '맷소사, 나의 나쁜 하루'로 첼시 린 윌리스와 함께 그림책 부문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윌리스 작가는 이 책의 글을, 염동문은 그림을 각각 맡았다. 1967년 제정된 보스턴글로브 혼북 어워드는 '혼북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주관해 소설과 시, 논픽션, 그림책 등 세 부분에서 각각의 수상작



(Winner)과 명예상(Honor)을 선정하며, 아동 및 청소년 문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상이다. 한편, 염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으며, 현재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볼로냐 라가치 픽션 우수상, 에즈라 잭 키츠 상, 샬롯 졸로토 상 등 아동 그림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여럿 수상한 바 있다.

방혜자 회고전 방혜자(56회화 | 1993~2022)

방혜자 동문의 회고전이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방혜자기금에서 퐁피두센터에 작품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됐으며, 초기작을 비롯한 기증작 13점, 미술관이 구입한 1점 등 작품 18점이 처음 공개되는 아카이브와 함께 전시됐다. 모교 졸업후 국비장학생 1호로서 프랑스로 유학, 파리 국립미술학교와 국립응용미술학교에서 수학한 방동문은 60여 년간의 화업 전반에 걸쳐 빛이라는 주제에 천착했다. 정신적, 비물질적 '빛'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 및 매체 실험은 특유의 마티에르



를 탄생시켰다. '빛의 화가로 불린 그의 작품은 세계 각계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파리 길상사, 서울 개화사, 광주 무각사 대웅전 후불탱이 방동문의 작품이고, 샤르트르대성당에도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설치됐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10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자랑스러운경기인상, 대한민국문화훈장, 한불문화상, 모나코현대미술제 聖예술상 등을 받았다.

빛이 있으라 김인중(5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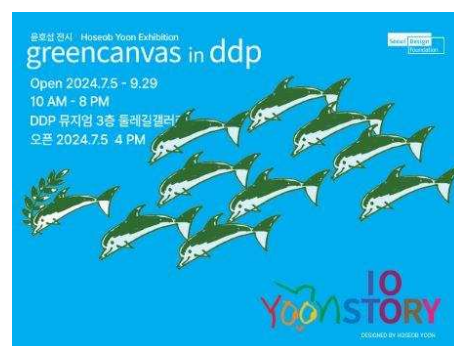
김인중 동문의 전시 '빛이 있으라'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초구 아트 스페이스 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회화뿐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 세라믹 작업에 두루 담아낸 '비움과 채움', '명상과 기도'의 메시지 그리고 '승고'의 미학을 선보였다. 사제 화가인 김동문에게 예술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빛을 향한 기도'이다. 그는 작품 속 빛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전한다. 김동문의 수묵화와 같은 조형적



특징은 독보적이다.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1974년 도미니크 수도회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는 1989년 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통해 세계적 거장으로 발돋움했다. 그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을 비롯해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세계 50여 곳의 성당에 설치돼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훈 훈장 오피시에를 수상했다.

Greencanvas in DDP 윤호섭(62응미)

윤호섭 동문의 전시 'greencanvas in ddp'가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동대문 DDP 돌레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진행하는 디자인&디자이너 전시 시리즈의 8번째로, 디자인과 예술을 통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그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전시의 전면에서 관람객을 반기는 초록빛 돌고래 무리는 돌고래쇼에서 벗어나 3년 만에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이야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넘어 관람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프리오픈 기간 동안 윤동문은 매일 DDP를 방문하여 돌고래를 100마리 넘게 그려 전시 공간까지 이어지는 복도에 설치했다. 이에는 멸종 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100마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그 의미를 직접 느껴보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긴 전시는 지난 7월 5일에 정식 오픈하여 완성된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국 인도 현대미술교류전 2024 오용길(65회화) 외

한국 인도 현대작가교류회(KICAA)에서 주최하는 릴레이 전시가 "침묵의 정원", "녹색여행", "꿈의 여정"이란 세가지 주제로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김보연아트센터 뿌디팔레 영월,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시장, 갤러리 섬에서 열린다. KICAA는 황만영 초대회장과 인도 측 대표 깔리차란 굽타가 2002년 주최한 뉴델리 전시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도에서 번갈아가며 전시회와 워크샵 아트캠프, 세미나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7명의 동문들을 비롯하여 총 53명의 유명작가가 참여한다. 특히 뉴델리를 중심으로 AOVVM그룹을 이끌어오고 있는



니렌센 굽타교수, 쇼바부르타, 미나데오라, 깔리차란굽타, 쇼빈 비타차지는 인도의 현대미술을 이끌어오고 있는 인도의 대표작가들이다. 관악수목원 전시를 기획한 신하순 모교 교수는 "모교와 농생대 연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가 앞으로의 다양한 연계전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술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느낄 기회가 될 것이다.

후원광고

한국 인도 현대미술교류전 2024

Korea India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2024

참여작가

[한국] 김경화, 김명은, 김보연, 김영순, 김정란, 김창래, 김호준, 노신경, 려산 박소영, 류지선, 민수정, 박기웅, 박능생, 박소영, 송근영, 송윤주, 송형근, 신하순, 오용길, 유벽, 이만수, 이민주, 이상은, 이석구, 이세정, 이승은, 이정원, 이필두, 장원구, 전성규, 조기주, 조은령, 하수경, 하연수, 홍미림, 황만영

[인도] Alok Uniyal, Hemraj, John Philipose, Kalicharan Gupta, Meena Deora, Mukesh Sah, Niren Sen Gupta, Rashmi Khurana, Santosh Kumar Verma, Satish Sharma, Shobha Broota, Shovin Bhattacharjee

[미국] Sukran H Chung

[호주] Haerim Moon

A Journey to Green 녹색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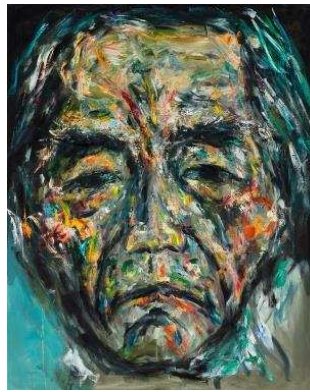
2024.8.15 Thur - 8.20 Tue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오프닝 8.19 Mon 12pm

2024.8.24 Sat - 9.6 Fri **김보연아트센터 뿌디팔레 영월**
오프닝 8.24 Sat 3pm

Silent Garden 침묵의 정원 2024.8.20 Tue - 8.29 Thur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시장**
A Journey of Dreams 꿈의 여정 2024.8.23 Fri - 9.22 Sun **갤러리 섬**

뉘 권순철(64회화)

권순철 동문의 전시 '뉘'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창원 사갤러리에 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얼굴'과 '뉘', 풍경을 담은 권동문의 작품 14점을 선보인다. '얼굴'은 한국 고난의 역사를 담은 한국인의 자화상을 그린다. '뉘' 연재작은 한국의 정신을 신체의 일부로 확장해 추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풍경화는 고향 창원의 산과 바다, 아틀리에에서 바라본 강가, 프랑스 지역 풍경 등 작가의 삶과 추억, 경험이 어우러진 공간을 표현했다. '얼굴' 연재작의 무거운



형상과는 대비되는 가벼운 형체와 밝은 색채가 특징이다. 한편 권동문은 창원에서 태어나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8년 그로리치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35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4회 이중섭미술상(1992)을 수상한 바 있다. 재불작가 모임 '소나무 작가 협회'를 설립한 원년멤버이자 초대회장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작업하고 있다.

농칠 수 없는 풍경 민정기(68회화)

민정기 동문의 전시 '농칠 수 없는 풍경'이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양평군립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양평군립미술관은 매년 '양평을 빛낸 작가'를 선정하여 그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민동문은 1987년부터 양평에 작업실을 두고 산, 들,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그만의 화풍으로 기록하였으며, 지역의 미술협회, 모임, 축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이끄는 등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기에 2024년 '양평을 빛낸 작가'로 선정되었다. 민동문은 도시 풍경을 풍유적(allegory)으



로 그리면서 민중의 언어로 시대상을 이미지화한다. 그는 1980년대 이발소에나 걸려있을 법한 통속적 예술인 소위 '이발소그림'을 선보이며 한국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대중적인 것에서 참된 미를 발견하고 서민적 정서로 현실을 재해석한 초기작, 그리고 양평으로 이주하면서 변화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산수풍경그림'을 시기별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편 민동문은 모교 회화과 재학시절부터 민중미술 작가로 활동하며 '키치화'를 선보였다.

순간의 지속 이용덕(77조소)

이용덕 동문의 회고전 '순간의 지속'이 지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이 창안한 역상(易像) 조각을 중심으로 그의 조형 세계를 연구하는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어 미술사, 미학, 철학의 영역을 포괄하여 작가와 작품을 탐구하는 다각적 관점을 제안했다. 이동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실제와 재현의 문제를 탐구해왔다. 그가 창안해낸 것은 '음과 양'이 뒤바뀐 역상조각이었다. 속이 텅 비어 '네가티브 조각'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각은 음각으로 새겨진 조각이지만, 감상자에게는 양감이 느껴져 이



채롭다. 불록함과 오목함, 안과 밖, 음과 양이 뒤바뀐 듯한 이 역상조각은 두 세계의 공존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동문은 공공조형물 영역에서 안중근 의사상 등 중요한 작품들을 다수 제작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베를린 예술종합대학에서 마이스터실러 과정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네우마 환타지 조명식(82회화)

조명식 동문의 전시 '프네우마 환타지(pneuma fantasy)'가 오는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PaL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 '프네우마'는 조동문의 '숨'이면서 지향하는 '영(靈)'적 작용으로 작가의 '회화정신'이다. 작가의 고백과 일상 '숨 쉬' 그 자체를 점과 획에 담아 표현한 그림은 자전적 에세이다. 작가는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식물성의 이미지를 내재화한 드로잉으로,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회화 요소로 번역한다. 작업의 과정에서 작가의 신체, 도입된 사



물, 조형요소는 서로 작용하며 상보(相補)의 관계로 형성된다. 그는 '작업과 삶에 상생의 모습이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조화로운 공존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작가의 미션이다. 한편 인천대와 국민대 교수를 역임한 조동문은 뉴욕, 뒤셀도르프, 울란바토르, 이스탄불, 서울, 부산 등지에서 60여차례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60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뉴욕, 광저우, 방콕, 서울에서 버스킹페인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조명식 초대전

Pneuma Fantasy

갤러리 Pa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Tel. 010 2217 3210

2024

8.13 - 8.24

오프닝

2024. 8. 13

오후 6시

후원광고

나무가 말하기를... 전향섭(79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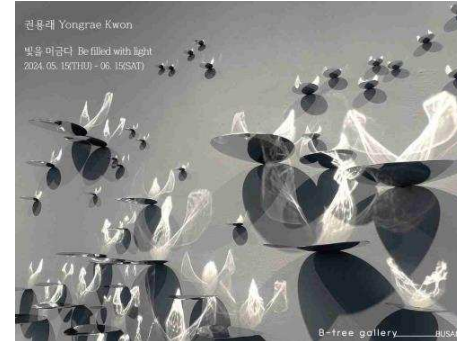
전향섭 동문의 초대전 '나무가 말하기를...'이 아트리안 컬피뮤지엄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무의 본질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탐구한다. 전동문은 나무를 매개로 한 작품들을 통해 나무의 생명력과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이자, 환경에 반응하며 다양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의 속성을 작품에 녹여내어, 비언어적인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시의 개막을 맞아 류준기(아트리안 컬피뮤지엄 회장) 박사는 예술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



해 현실의 중력을 극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강조하고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혼을 담은 작품을 통해 고유한 깨달음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며, 전동문을 '타고난 이야기 재주꾼'으로 칭송하였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조각가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 및 개인전 등 다수의 전시에 출품했으며 경기예술대상과 우성김종영조각상 등을 수상했다.

빛을 머금다 Be filled with light 권용래(82서양)

권용래 동문의 개인전 '빛을 머금다 Be filled with light'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트리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권동문의 4가지 빛을 머금은 방을 컨셉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권동문은 본인의 작품세계에 대해 "나의 작품은 빛이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빛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재료이자 기법이며 표현이다. 빛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빛이다. 그들의 문화도, 그들이 이루어나가는 역사도 또 그들이 영위하는 삶도 빛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안료로 가득 채워져야 할 캔버스 위에 동그런 스테인리스 조각들이 세워져 있다. 언뜻 아무것도 없는 빈 캔버스 같아 보이지만 형태가 없는 빛을 이용해 색이 반사되면서 오색찬란한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빛과 빛이 겹겹이 쌓이며 산수 풍경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권동문은 빛을 주요 매체로 사용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다. 한편 권동문은 예술의전당, 갤러리시몬, 금산갤러리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Beyond the Tiger 전기순(82응미)

전기순 동문이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인도 델리 아이팩스(AIFACS)에서 제13회 인도 디지털 아트 개인전(13th, India International Digital Art Solo Exhibition)을 갖는다. 전동문은 'Beyond the Tiger'라는 제목의 이번 개인전을 통해 호랑이의 영원한 기상과 의리를 표현한다. 가로 500mm, 세로 900mm 크기의 작품 16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전동문은 이번 개인전과 관련해 "나에게 있어 삶의 생명력은 유한성에서 영원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설렘-팽이'의 회전이 살아 있을 때 존재의 역동적인 에너지



가 생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호랑이는 '나-여기-있음'에 대한 '시간-속-몸'의 유한성에서 '시간-너머-몸'의 영원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적 에너지임과 동시에 삶의 의지처럼 종교와 철학을 통섭하는 상징적 매개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문 현재 강원대학교 멀티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기순의 끌림 아쉬람'에 이어 지난 6월 20일 두 번째 에세이집 '전기순의 설렘 아쉬람'을 출간했다.

이기칠: 작업에서 연습으로 이기칠(83조소)

이기칠 동문의 개인전 2024 다티스트 '이기칠: 작업에서 연습으로'가 지난 6월 25일 시작하여 오는 9월 29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지난 30여 년 작업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는 대표작과 근작을 아우르는 회화, 조각, 설치 작업을 통해 이기칠 작가의 작품세계에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창작'과 '조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1990년대 '작업' 연작을 비롯해 작업실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작업실을 마련하기 위한 문



제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은 '작업실' 연작, 공간에 대한 개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주' 연작이 출품된다. 또한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사유하고 삶과 예술을 연결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간연습', '관찰연습', '그림연습' 등 '연습' 연작의 변주들이 펼쳐진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런던 첼시예술대학에서 순수예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거, 동락 Life Together 이정은(90동양)

이정은 동문의 개인전 '동거, 동락 Life Together'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선배이자 어머니인 동양화가 노숙자 동문과 함께한 전시 '가까이 오래' 이후 오랜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본인 혹은 지인들의 서재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의 한 형태인 '책가도'를 빌려 재해석하고 재현한 현대적 책가도 '서재'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이동문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 그 속



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를 차분하고 담백하게 그려낸다. 키우는 반려동물, 자신이 좋아하는 오브제, 작업실에 놓인 화초 등 주변에 늘 함께하고 위안을 주는 존재들이 작품의 주제이다. 전시를 통해 동양화 전통 기법을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미감을 발휘하는 이동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Skin 노진아(94조소)

노진아 동문과 심윤 작가의 전시 'Skin'이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경북 성주군 아트스페이스 울림에서 열린다. 아트스페이스 울림의 개관 전인 본 전시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현실, 기계/인간 같은 이분법적 경계에 질문을 던지는 노동문의 작업과 고달픈 현실과 투쟁하는 현대인을 그리는 심윤 작가의 작업을 'Skin'이라는 주제로 엮어 선보인다. 노동문의 '로봇'은 창백하고 딱딱한 피부, 머리 뒤 늘어진 전선을 가진 이질적인 인간 형상에 깃들인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되는 것만을 꿈꾸며 진화해왔다'고 말한다. 관객



과 대화로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로봇'은 20년 전 노동문이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이래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해 왔다. 로봇이 관객과 대화를 거듭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방식은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는 방식과 닮았다.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학습한 로봇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감정과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작업은 이러한 질문을 불러 일으켜 인간과 기계의 경계, 기계의 생명적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THE GAIA SELFIES 백승아(99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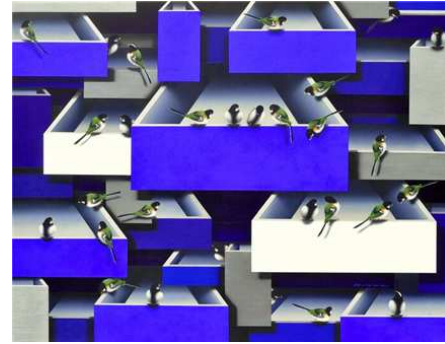
백승아 동문의 개인전 'THE GAIA SELFIES'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압구정 로이갤러리에서 열렸다. 백동문은 가장 익숙한 시점에서 보는 자신의 몸을 그린다. 1인칭 시점으로 그린 자화상을 통해 관객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화면 안에 중첩되고 충돌하는 시점으로 재구성된 몸은 작가의 신체인 동시에 대상으로서의 물체로 다뤄진다. 이는 예술가인 자신과 창작된 이미지 사이 거리를 질문하는 백동문의 방식이다. 몸의 이미지는 더 나아가 자연과 연결된다. 백동문은 자신의 신체를 풍경으로 비유하여 자연



의 유기적 형태와 인간의 형태 사이의 유사점을 표현하고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자아, 자연, 환경 간의 섬세한 균형을 강조한다. 생명과 관계 맺음에 대한 탐구는 식물을 그린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백동문은 자신의 작품이 나 자신의 자기 발견과 예술적 표현의 여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류 사이의 유대에 대한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성의 여정: 惡을 설득할 수 있는 善 정해운(04동양)

정해운 동문의 개인전 '본성의 여정: 惡을 설득할 수 있는 善'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노블레스 컬렉션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정동문의 대표 시리즈 'Plan B'와 'Relation'의 신작과 함께 벽화,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정동문의 작품에서 박새는 인류를 상징한다. 작품에서 그들은 실로 표현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교류하며 생태계를 이뤄나간다. 'Plan B' 시리즈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드러낸다.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언제나 좋을 수 없고



대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악조건을 헤쳐나가며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Relation' 시리즈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서랍에 비유해 드러낸다. 정동문은 홀로 이뤄지는 관계가 없다는 통찰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삶을 위해 개인이 다해야 할 역할과 책임, 그리고 견고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반투명한 구호와 기호 김민혜(07동양)

김민혜 동문의 전시 '반투명한 구호와 기호'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오매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동시대 로컬리티와 한국적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집회/시위 등에서 사용하는 강경한 용어들의 맥락을 지우고, 또 다시 써보며 새로 발생하는 의미들을 파악하여 설치작업을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세운지구 일대에서 채집한 구호'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기호'들을 불분명한 메시지의 덩어리로 활용했다. 김동문은 동시대적인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감각하고, 고전의 미감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복고적 도상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박제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비단의 물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나간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및 런던 첼시예술대학교에서 순수예술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부산 홍티아트센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익산창작스튜디오를 거쳐 을지로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와 지역에 대한 영상 및 설치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배회 임재형(08서양)

임재형 동문의 개인전 '배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갤러리 마프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마프를 운영하는 로워랩코리아 산하 경험형 아트 플랫폼 보글맨션의 두번째 기획 전시로, 임동문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거리감과 멀리 보고 에둘러 그려온 그의 작업세계를 방법론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동문 작품 특유의 구심점을 갖지 않는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작업과 함께 습작 드로잉과 작업에 대한 단상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북 '영원과 하루'를 선보였다. 임동문은 의도적으로 표현을 절제하여 화면 위에 어느 하나 특출하게 도드라지는 지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가는 '사실감이 그려내는' 행위를 관념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임동문은 갤러리도스, 쇼엔텔, 온수공간, 상업화랑 을지로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국내외 국공립 및 사립 주요 기관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My Sky Your Sky 권현빈(1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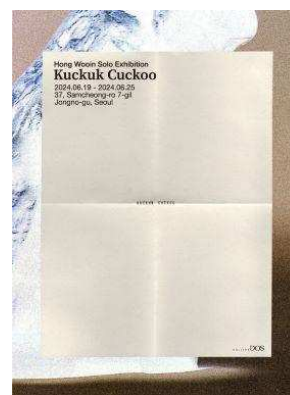
권현빈 동문의 단체전 'My Sky Your Sky'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휘슬 서울에서 개최됐다. 세 명의 작가가 바라보는 대상과 풍경, 감각의 경계가 각기 다른 물질로 변환되는 모습을 탐구하는 이번 전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하늘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각기 다른 매체와 주제로 작업하는 조각가 권현빈, 사진작가 이민지, 회화작가 이해민선의 작품을 통해, 작업에 임하는 미술가들 또한 같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상이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권동문의 작업은 주재료인



돌을 오랜 시간 바라보는 수행으로 시작된다. 천천히 훑어 내려간 미세한 선과 점에서 틈새를 찾아 쪼개고, 두드리고 파내거나 붙여보며 그것의 조각으로서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권동문은 '두산아트랩 전시 2019: Part 1'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두산갤러리에서 개최한 개인전 'We go' 외 갤러리 기체, 모노하, 에이라운지, 레인보우큐브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Kuckuk Cuckoo 홍우인(석21서양)

홍우인 동문의 전시 'Kuckuk Cuckoo'가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갤러리도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홍동문은 싱글채널비디오와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작업을 다수 선보였다. 전시 제목인 'Kuckuk Cuckoo'는 다른 나라의 빠꾸기 이름을 조합하여 지어졌다. 홍동문은 우리 주변에서 사물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에 의존하여 명명된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대상의 호칭에 관하여 근본을 탐구함과 동시에 과연 각각의 이름이 제대로 당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각도로 조명한다. 홍동문은 언어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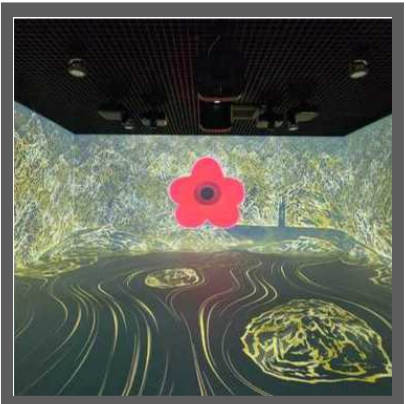


없이 말 속에 나타나는 왜곡과 단순화, 복잡화를 간파하여 작업으로 이끈다. 그는 불완전한 언어의 결과 속을 면밀히 관찰하고 말 속 감추어진 내면의 서사와 전달력을 여러 형태의 시선으로 살핌으로써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며 어휘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가치관과 관점을 재해석한다. 한편 홍동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과정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19년 서울 화이트 노이즈에서 열린 단체전 '초치기'에 참여했다.

8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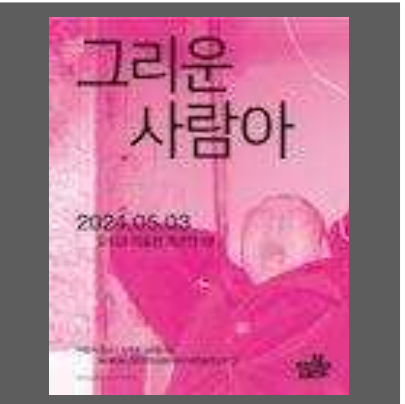
흰 : 원형
최만린(54조소)
3.28-11.2
최만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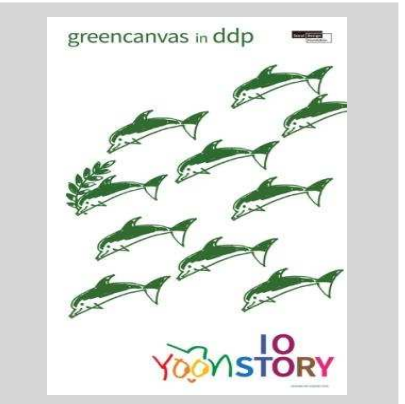
생명의 연가
김병종(74회화)
4.2-12.3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O :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에릭오(오수형02서양)
4.25-12.31
제주 하우스오브레퓨즈



오치균미술관 개관전 1부
오치균(76회화)
5.2-9.29
오치균미술관



greencanvas in ddp
윤호섭(62응미)
5.13-9.29
DDP 둘레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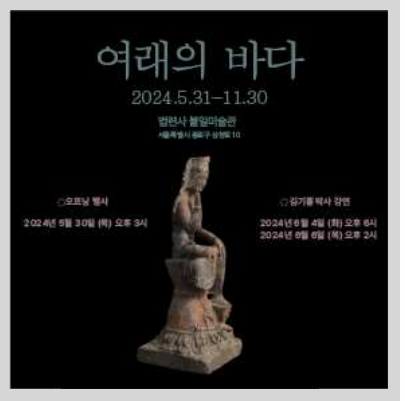
하늘과 땅과 곡식
송윤주(94동양)
5.16-8.30
OCI센터버드소공드림점



Skin
노진아(94조소) 외 1인
5.18~8.11
아트스페이스 울림



봄 햇살에는 초록이 들어 있었다
정수연(18동양)
5.21~8.11
보름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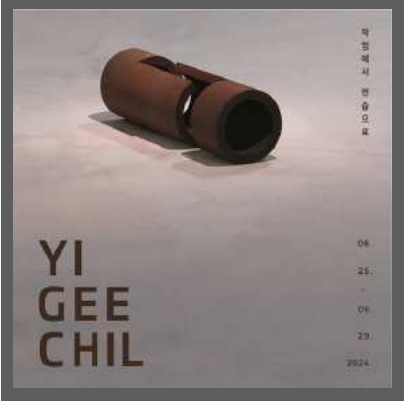
여래의 바다
김기홍(75회화) 외 1인
5.31-11.30
법련사 불일미술관



물질의 생명력
한운성(65회화)
6.4-10.13
김제벽천미술관



농치지 못하는 풍경
민정기(68회화)
6.25-8.18
양평군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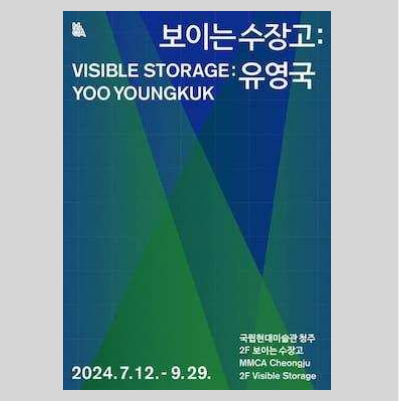
이기찰-작업에서 연습으로
이기찰(83조소)
6.25-9.29
대구미술관



윤형근 : 담담하게
윤형근(47회화)
7.4-9.29
청주시립미술관



나무가 말하기를...
전항섭(79조소)
7.10-10.9
아트리안 컬피뮤지엄



보이는 수장고 : 유영국
유영국(교원)
7/12-9.2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그림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
정경미(83서양)
7.16-8.10
갤러리 PaL



석재문화상 수상작가전
정종해(67회화)
7.23-8.4
대구문화예술회관



Natura&Pattern, Pater
김호선(55조소)
8.1-8.31
더네이처 갤러리



Pneuma Fantasy
조명식(82회화)
8.13-8.24
갤러리 PaL



한국-인도 현대미술교류전 2024
오용길(65회화) 외 다수
8.15-8.20
아트스페이스 쉼리아